

공무원이 무슨 재테크를 해!!

정연호

외환은행 영업부 WMC PB팀장

I. 공무원에 대한 소회(素懷)

한 학년이 한 반밖에 없어서 전교생이 고작 360명 남짓한 초등학교를 다녔던 70년대 초, 나를 포함한 친구들 대부분의 가정형편은 왜 그리도 어렵고 힘들었는지, 지금에서 돌이켜 보면 참으로 아득하고 아련한 추억일 뿐이다.

가난에 찌들어 책가방보다는 책보자기가 훨씬 많던 그 시절, 반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쁜 학용품을 쓰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 아버지의 직업이 면사무소 서기였었고 그 아버지가 공무원에 대한 나의 첫 추억이었으며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당연히 나의 첫번째 장래희망은 면사무소 서기였었고.

초등학교를 졸업한지 30년이 넘는 지금, 나는 불행히도 그 꿈을 이루지 못했고 대신, 그때의 가난에 대한 한을 풀려는 듯 은행원이 되어 엄청난 돈을 한(?)없이 만지면서 백만장자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PB(Private Banker)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

내가 어린시절 그토록 바라던 공무원은 오늘날에도 전 국민이 바라는 꿈의 직업이고 온 나라의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되고 나면 남녀 모두 배우자 감으로 첫번째 꼽히고 있으니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은 좋은 직업이요 선망의 대상이며 조국의 미래라 아니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왜 이토록 공무원이 되고자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는 걸까? 공무원하면 떠 오르는 이미지가 가끔씩 뉴스를 장식하는 부정부패의 공무원이나, 민원인에게 불친절하며 권위적인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마도 요즘처럼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데다, 또 직장인이 된 후에도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이 다반사가 되면서 이태백, 사오정, 오륙도 같은 직장인의 비애를 풍자하는 유행어가 생기는 현실에서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정년이 보장되고 복지제도도 좋으며 근무강도 또한 약하고 퇴직 후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죽을 때까지 적지 않은 공무원연금이 나오니 따로 노후대책을 세울 일도 없고 시간이 많으니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고 직장 내 분위기는 경쟁의식이 사기업보다 거의 없으니 잘났건 못났건 정년나이 같으니 동료간에 우애 있고, 이런 향간의 공무원에 대한 편협된 인식이 한 몫 한 것이 아닐까? 나는 요즘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근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의 이런 잘못된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공무원들은 수재민복구를 위해 휴가를 반납하고 박봉으로 불우이웃을 돕기도 하며 불철주야 국민과 조국의 안녕을 위해 격무에 시달리며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며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업무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요즘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국민연금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지자 공무원도 이제 재테크를 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은 비록 월급과 퇴직금은 적지만 안정적으로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데다가 청렴 결백해야 할 공무원이 돈을 너무 밝히는 것 같아 재테크니, 노후 준비니 하는 것들에 관심이 적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공무원 중에서도 이미 훌륭한 재테크로 안정된 직장에 넉넉한 살림까지, 행복한 부자로 살고 있는 재테크의 고수들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그 동안 재테크에 관심이 부족했거나 관심은 있으나 바쁜 업무 탓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대박의 꿈이나 기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부자보다는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마인드와 생활 철학을 안내해 주고자 한다.

II. 재테크에 앞서 파이낸셜 플래닝을 먼저!

재테크의 사전적 의미와 어원을 찾아보면 한문과 영어의 합성어인 재무 테크놀로지(Financial Technology)의 준말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돈)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운용)하여 높은 이익을 얻는다는 재무관리(돈 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의미하는데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재산을 늘리는 방법, 즉 돈을 잘 버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재테크에 세(稅)테크, 시(時)테크, 인(人)테크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이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는 재테크전문가인 FP(Financial Planner)나, PB(Private Banker)가 유망 분야로 각광 받고 있음을 봐도 재테크가 얼마나 유행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테크를 잘못 이해하면 돈 잘 버는 기술정도로 오해할 수 있다.

요즘 해외펀드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가끔씩 기사를 보다가 전화해서 “어떤 펀드에 가입해야 돈을 잘 벌 수 있나요?” 하고 질문 하는 고객들이 있다.

이것은 마치 의사의 처방도 받지 않은 채 약국에서 단순히 몸에 좋은 약을 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소셜 동의보감에서 허준이 스승인 유의태로부터 같은 증상의 병자라도 병자의 몸의 크고 작음, 뚱뚱하고 마른 정도에 따라 제각기 처방이 다르다는 것을 배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처럼 재테크도 각자의 처한 상황과 가족관계, 투자 자금의 성격과 투자기간, 개인의 위험 감당정도 등 종합적인 상담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투자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한 전화질문 정도로는 부족하니 방문상담을 하라고 권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약을 사기에 앞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듯 투자를 하기 전에 재무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재테크를 단순히 돈을 잘 굴러 대박을 터트리는 기술이라는 생각만 하다 보면 개인적인 환경이나 생활 철학이 배제되어 재무목표달성을 통한 행복한 미래라는 근본적인 목적보다는 무조건 돈만 많이 벌고 보자는 식으로 흘러 진정한 삶의 가치나 방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따라서 재테크에 앞서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재무설계는 각 개인의 상황과 나이에 맞는 인생설계를 의미하는데 기업이나 국가의 방만한 운영을 막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커나가고 국가경제가 탄탄해 지도록 하기 위해 연초에 예산을 짜고 계획대로 집행을 한 뒤 그 결과를 평가하고 조정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되듯이 개인의 재무

설계도 마찬가지다.

개인이 전체적인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계획성 있게 자금을 안배해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앞으로 언젠가는 해야 할 지출이나 투자결정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한정된 돈으로 최대한 효과를 올리는데 재무설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즉, 개인재무설계는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벌어들인 돈과 쓸 돈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재정 플랜을 짜서 그 결과를 평가, 조정하는 과정 전체를 말하며 또한 현재 하고 있는 재테크와 투자방법이 올바르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한다.

III.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의 필요성과 효과

그렇다면 이러한 재무설계는 왜 필요할까?

본인 스스로 재무설계를 하는 것은 마치 자가운전자가 자동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자동차 엔진을 직접 수리 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재무상태파악과 더불어 이를 근거로 나에게 꼭 맞는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재무계획의 수립과 함께 하루가 멀다 하고 수없이 많은 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나의 투자성향에 알맞은 상품을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만 앞으로 다가올 자신도 모르는 재정적 위험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행하는 재무설계의 효과는 어떨까?

시간이 지나도 재정적으로 변화 없는 답답한 삶에서 수입과 지출에 맞춘 규모 있는 저축으로 장래에 예상되는 지출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고금리였던 과거의 저축시대에서 요즘 같은 저금리의 투자시대로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제안을 통해 고객이 부자가 되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IV.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부자 완전 정복

자, 이제 재테크 실전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손자방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재테크를 통해 평소 행복한 부자로 살면서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꿈꾼다면 부자에 대해 먼저 알아야만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부자의 기준이 농사 짓는 땅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천석꾼, 만석꾼하면서 농지의 규모가 부자의 잣대였다면 지금은 적어도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규모가 10억대 이상은 되어야만 부자로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로 부자란 꼭 10억원의 돈이 없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돈에 구애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경제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

재산의 축적은 소득과 소비의 균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자신이 부자인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이웃집 백만장자’의 저자인 미국의 스탠리 박사는 부자를 판별하는 산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text{연간 세전 총소득} \times \text{나이} \div 10 \times 2\text{배} < \text{현재의 순자산}$$

즉, 자신의 총소득에 나이를 곱하고 이를 10으로 나눈 금액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2배 이상 크다면 부자라고 할 수 있고 만일 그 반대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미래의 생활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방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현재 45세로 나이가 같은 연봉 8천만원에 5억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1억원의 금융자산을 가진 회사원과 연봉 4천만원으로 3억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똑같이 1억원의 금융자산을 가진 공무원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높은 연봉에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는 회사원보다도 외견상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공무원이 더 부자라고 판단된다. 이는 현재의 순자산의 축적은 소득에서 소비를 차감하여 이루어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씹씹이가 커지면서 그 생활패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산이

있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부자들의 유형을 보면 돈을 버는 공격형보다는 절약하는 수비형의 사람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더라도 지출과 균형을 맞추어 미래를 위한 저축을 지속적으로 하여야만 노후에도 현재와 같은 생활 수준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부자의 기준도 만족 수준이라는 주관적인 개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목적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이고 보면 부자도 물질적 부자와 정신적 부자 또는 행복한 부자와 행복해 보이는 부자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고 나 자신은 어느 유형의 부자가 되고 싶은지를 먼저 결정한 후, 그에 따라 부자가 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V. 경제자유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복한 부자’ 전도사이며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혼다 켄은 일을 재미있게 하면서 돈도 벌고 또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면서 일과 돈에서 일을 우선으로 치면서 즐겁게 일하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을 경제자유인이라고 정의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은 다음 문제라고 한다. 하지만 일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싫어하는 일, 못하는 일, 경험이 없는 일, 돈을 못 벌거나 혹은 오로지 돈 만을 위해서 하는 일, 인생의 목표와 전혀 다른 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고, 경험이 많고, 그것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으며,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하고 싶은 일,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 주위 사람들까지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일하면서 인생의 목표가 되는 라이프 워크(Life Work)가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인생의 목표가 되는 일을 즐겁게 해 보기 바란다.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하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는 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보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돈에 대해 상세히 배울 기회가 없었을 텐데 돈에 대한 지식을 익히지 않고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데 이것은 부자들 중 많은 수가 돈에 대한 교육을 받

은 적이 있다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부자는 어린 시절부터 돈에 대해 배우므로 돈을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능숙히 사용한다. 그럼 행복한 부자는 돈의 지혜를 어떻게 배웠을까?

혼다 켄은 돈에도 '돈의 IQ'와 '돈의 EQ'가 있는데 경제자유인은 돈의 IQ 뿐만이 아니라 돈의 EQ도 높다고 한다.

먼저 '돈의 IQ'는 돈의 지성지수로 즉 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인데 벌고, 쓰고, 지키고, 늘리는 4가지 지혜를 몸에 익히면 비로소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돈의 IQ만 익히면 행복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돈의 EQ' 4가지, 즉 인생이 당신에게 가져다 준 것을 진심으로 받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으며, 서로 나누는 것까지 마스터하면 돈과 건강하게 사귈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의 IQ는 많이 벌고, 지키며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는 한편 돈의 EQ는 돈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믿으며 서로 나누는 것을 추천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모순이라고 생각해 갈피를 못 잡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균형 속에 인생의 풍요로움이 있는데 돈을 버는 것 혹은 즐기기만 하는 것으로는 돈의 균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디쯤이 그 균형 점 인지는 본인이 처한 시대, 가족, 경제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여러분도 자기 나름의 균형을 찾아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내기 바라면서 혼다 켄이 말한 백만장자가 되는 열 가지 비결을 소개하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맺고자 한다.

1. 직업은 돈이나 일의 조건에 관계없이 자신과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
2. 주위 사람들에게(30명 이상) 지지 받는 사람이 되라.
3. 성실함으로 주위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어라.
4. 건강하고 체력에 자신감이 있도록 단련시켜라.
5.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행운을 웃음과 긍정과 낙관 그리고 감사함으로 끌어 들여라.
6. 어떤 위기도 극복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기를 넘어 나아가라.
7. 멘토(인생의 스승)라고 부를만한 사람을 찾아 배우고 경청하라.
8. 마음속으로부터 늘 지지해주는 배우자를 만들어라.
9. 아무리 큰일이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내릴 수 있는 신념을 가진다.
10. 10년 후의 일을 생각하며 매일 대비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다. 🍀